

장성군, ‘볼거리·즐길거리 한번에’ 바닥분수 인기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운영
8월말까지 오전 10시부터 가동
조명·물줄기·음악... 공연 병행
수질·안전 관리 등 지속 정비

장성군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한다. 휴가철에도 평일 운영되며 조명과 물줄기가 동시에 연출되는 음악분수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까지 선사해 여름철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한다.

홍길동테마파크 바닥분수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형분수는

오는 13일부터 시원한 물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말 및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되며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오는 27일부터 8월11일 사이에는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도 운영한다.

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는 음악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연출되는 ‘음악분수’다. 서부권에선 최고의 여름철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명과 분수를 함께 즐겨야 제맛이다 보니 가동 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느지막하다. 평일에는 4회, 주말 6회 가동되며 회당 30분씩 감상할 수 있다. 8월18일까지 운영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하절기에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수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를 가동한다.

장성군 제공

한편 물놀이를 즐길 순 없지만 황룡강 인공폭포도 둘러볼 만하다. 플라워터널, 용작교 등 경관조명과 함께 감상하면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으며 10월 말까지 운영해 방문 일정 짜기에도 수월하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경사로 설치 지원 업소 추가 모집 담양군, 식품접객업소 대상

담양군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보조금은 최대 80만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격을 취득한 영업자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외인 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업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담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관광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광 취약계층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입식 테이블과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창평국밥거리, 국수거리 등 담양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주요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 곡성군, 8월 말까지

곡성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서 행락 질서계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여름철 행락질서 지키기에 나섰다. 곡성군은 도림사 계곡 일원에서 실시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난 5일부터 8월 말까지를 관광객 맞이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중점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림사 계곡, 압록유원지, 태안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행락 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행락질서 근무요령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중점 점검, 피서지 생활 쓰레기 관리, 무단 투기 및 무단 취사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방지 활동을 통해 질서 있고 올바른 행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은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오염행위, 안전사고,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보건소 관계자가 C형간염 검사를 하고 있다. 화순군은 C형간염 퇴치 목표로 무료검사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지원

31일까지 성인 600명 선착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제3급 감염병인 C형간염 퇴치를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C형간염 퇴치사업’은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전남도·전남감염병관리지원단·호남권질병대응

센터 등이 함께 참여한다.

무료 항체검사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항체검사 양성자에게는 2차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를 선별할 예정이며 그중 중위소득 130% 이하 확진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C형간염은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에 찔

리는 경우, 문신·피어싱 시술 등 혈액을 통해 감염되며, 방치 시 질병 부담이 큰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예방백신이 없고 국가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으나 치료제가 개발돼 완치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C형간염은 초기에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료제 개발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검진사업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벼 예찰포서 흑명나방 발견 예찰 강화 당부

2023년 대비 20일 빨라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일 작년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 흑명나방이 화순 지역에서 지난 3일과 4일 연속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흑명나방 출현은 지난해 첫 포획 일인 24일보다 20일이나 빨랐다.

흑명나방은 장마철에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벼 잎을 세로로 말고 그 안에 숨어 잎을 갉아 먹는 피해를 준다.

늦게 이앙했거나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논에서 주로 발생하며 벼 이삭의 등숙에 나쁜 영향을 끼쳐 쌀 수확량 감소

와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흑명나방 1화기 최고 성수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며 작년에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 탓에 중국에서 날아온 후, 급속히 번식해 평년 대비 피해가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피해 잎이 1~2개 관찰될 때 적극적인 초기방제로 밀도를 낮추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를 당한 잎은 세로로 길게 말려 있고 하얗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벼멸구나 이화명나방 등의 다발생 해충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농약 안전사

용기준에 따라 살포한다.

올해 화순군은 벼 일반재배 방제약제 지원사업(6억 3000만 원)과 친환경 벼 공동방제 지원사업(1억 800만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병해충 방제는 농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찰이 필요하다. 최근 이화명나방이나 멸구류 등도 발생 주기가 짧아져 밀도가 급증하고, 장마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인 병해충 방제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하하호호 물총싸움’ 이벤트 곡성군, 13일부터 기차마을서

곡성군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13일부터 8월25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하하호호 물총배틀’ 여름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타트랙 안에 있는 풀공을 물총으로 쏘 상대진영으로 보내는 ‘수타트랙 파워게임’, 참가자가 출발지점에서 비치볼을 물총으로 쏘 도착지점까지 이동하는 ‘물총경주’, 5개의 컵을 물총으로 쏘서 침몰시키는 ‘컵침몰작전’ 등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우수한 성적을 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매주 주말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한 시간씩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벤트 부스에서 물총 대여가 가능하다. 음악분수 주변에서 진행되는 행사장에는 파라솔이 비치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도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께서 방문하셔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공중위생업소 정기평가 곡성군, 최우수 6개소 지정

곡성군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정기평가를 지난 4월에 시작해 이달 초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관내 숙박업 20개소, 목욕장업 4개소, 세탁업소 10개소 등 총 3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평가에 앞서 대상업소에 평가항목을 사전 안내하여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평가는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인 1조가 실시했으며, 객실 위생관리, 먹는 물 관리, 요금표 게시, 소독실시 여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는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기, 건축, 소방 등 4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숙박업소 대상으로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6개, 우수 15개, 일반 13개 업소로 분류되었다.

90점 이상을 받은 6개 숙박업소에는 ‘THE BEST 우수숙박업소’ 현판을 수여하고 모든 업소에 대해 등급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차등 지원했다.

평가 결과는 관광객들이 공중위생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업소가 한 단계씩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